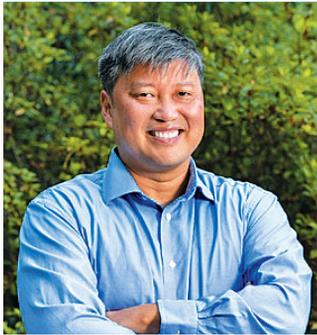




- 특집 _ 재외동포청, 예산 1천억 시대 열었다
재외동포청, 새해에도 재외동포 적극 보듬는다
- 기획 _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해졌다
모국 찾은 입양 동포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물을 것”
- 화제 _ 미국 조지아주서 첫 한국계 시장 탄생... 존 박 전 브룩헤이븐시 의원
미국 뉴욕경찰 178년 사상 최초로 한인 총경 탄생... 허정윤, 임용 25년 만에 승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계는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국제경제가 침체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서로 돕고 단결해 숭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특유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기를 희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5일 대선 공약이자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인 재외동포청을 설립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또한 재외동포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대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재외동포재단에 보내주신 성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원폭피해 동포와 파독근로자분들의 모국 방문이 있었고,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는 '정부와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가 해외(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됐으며, 전년 대비 참가기업인 수 3.8배, 상담 건수 4.6배, 상담 금액 1.6배 등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모든 재외동포청 직원은 동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 문턱 낮은 기관,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는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청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손 모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02 권두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 04 특집 재외동포청, 예산 1천억 시대 열었다
재외동포청, 새해에도 재외동포 적극 보듬는다
- 06 기획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해졌다
모국 찾은 입양 동포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물을 것”
- 08 화제 미국 조지아주서 첫 한국계 시장 탄생… 존 박 전 브룩헤이븐시 의원
미 뉴욕경찰 178년 사상 최초로 한인 총경 탄생… 허정준, 임용 25년 만에 승진
- 10 한민족 공감 일제 해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난항
한국계 활약한 ‘성난 사람들’, 골든글로브상 휩쓸었다
- 12 글로벌 코리안 뉴욕타임스 ‘올해 주목받은 책 100권’에 한국계 작가 소설 2편 포함
미국 한인 셰프 ‘물회면’, 뉴욕타임스 ‘올해 최고의 요리’ 선정
미국 다솜한국학교, ‘재외동포의 삶과 꿈’ 출간
- 14 유공 동포 ‘원자력계 큰 별’ 재독 동포 과학자 김재일 박사 별세
- 15 주목! 차세대 18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사된 한인 청년
- 16 지구촌 통신원 한국서는 J팝 · 일본서는 K팝 떴창 터졌다
- 18 동포소식 한글학교 교사 연수 참가자들 “한국 발전상 알리기 적극 동참” 외
- 20 문화유산 조선 정조의 사부곡… 화성 율령과 건물
역사 돌아보고 자연미도 감상하는 공간
- 22 OKA 뉴스 세계 47개국 한글학교 교사 206명 초청 연수 진행 외
- 24 동포 캘린더 재외한인학회, 국내 귀환 동포 인권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외
- 25 기고문 해외 한국학교의 중요성
최미영 미국 다솜한국학교 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아시아지역 동포간담회 개최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 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예산 1천억 시대 열었다

정체성 함양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영 예산이 신설됐고,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아포스티유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서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1천67억원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및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의 2023년도 예산인 676억원과 비교하면 57.8%(391억원)가 늘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정체성 함양 등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한 예산이 증가했다.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금이 160억원에서 204억원으로 28% 뛰었다. 차세대 초청 모국 연수 예산도 59억원에서 77억원으로 증액됐고, 초청 인원도 2천300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됐다.

동포사회와 모국 간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사업 역시 늘어났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예산이 25억원에서 27억원으로 증가했고, 이전에 없던 재외동포 청년 인턴 사업은 신설됐다.

원폭 피해 재일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재외동포 보듬기 사업에는 8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또 전쟁·테러·재해 등으로 인한 해외 위난(危難) 사건·사고 발생 시 취약 동포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 및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

재외동포 모국 체류 · 정착 지원 사업 신설

눈에 띄는 것은 인구절벽의 해법으로 재외동포의 모국 체류 · 정착 지원 사업이 신설된 점이다. 이전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해외 거주 동포로 제한했지만,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도 사업에 포함했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재단이 펼쳐왔던 기존 사업에 관해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실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보호 ·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에도 이번에 증액된 예산에는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염원과 국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담겨 있다”며 “특히 재외동포청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각종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참]**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5일 인천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청사 현판을 전달받고 있다.
2.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열린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상을 바라보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 새해에도 재외동포 적극 보듬는다

사할린 · 고려인 · 입양 · 위난 피해 동포 지원 앞장

재외동포청은 글로벌 중추 국가를 견인할 전 세계 재외동포를 꼼꼼히 챙기기 위해 2024년 새해에도 다양한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이어간다.

먼저 해외에서 위난(危難)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던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생필품 지원 예산으로 4천만원을 신규 배정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7월 위난 피해 동포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난치성 혈액 증양으로 고통받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올해부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회장 신희영)와 함께 조혈모세포 이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혈액 증양을 앓는 재외동포들이 인종 간 불일치 문제 등으로 자신에게 맞는 조혈모세포를 찾기 못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홍보해 국내 기증희망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재외동포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돼 사할린 동포의 숙원이 해소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동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기철 청장 “소외 동포들에게 울타리 역할 지속할 것”

지난해 ‘동포 보듬기’ 1호 사업으로 추진된 원폭 피해 재일동포 초청 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소외된 동포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위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해 고려인 이주사를 재조명하고, 러시아 ·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고려인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또 동남아 지역 다문화 가정의 동포들에게 한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정체성 함양도 돕는다.



1



2

모국과의 유대가 취약했던 입양 동포를 한국에 초청해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을 추진해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들이 ‘나에게도 조국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6번째)이 난치성 혈액 증양을 앓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신희영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회장(왼쪽에서 5번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양측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왼쪽에서 8번째)이 지난해 12월 21일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히마을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할린동포,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 가능해졌다

사할린동포법 개정안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발효



일 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가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할 길이 열렸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대상이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된다는 내용 등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7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25년부터 자녀 전제로 동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영주귀국 사업은 개정법률안 발효 전인 6월 30일까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지원자를 신청받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으로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제정됐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들에게 체감할 도움 주는 데 최선”

이 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우리 정부로부터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 등을 받아 고국에 정착해 왔다.

다만, 사할린동포와 함께 영주귀국을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여러 명인 동포는 러시아에 나머지 자녀를 두고 영주 귀국하는 등 또 다른 이산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사할린동포 1세 부모·자녀, 사할린동포 2세 형제·자매가 떨어져 살지 않고 귀국해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개정법률안은 이 밖에도 ▲영주귀국 동포 및 동반가족의 실태조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사할린동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도 신설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을 뒷받침하게 했다.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 정선호 과장은 “사할린동포 사회의 숙원이었던 사할린동포법이 공포된 만큼,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가가 재외동포들의 곁에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

1. 지난해 3월 17일 강원도 동해항으로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63명이 고국 땅을 밟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2. 이기철 재외동포청장(가운데) 지난해 12월 21일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한 뒤 동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모국 찾은 입양 동포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물을 것”

재외동포청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토크 콘서트 마련

“그 발에 파란 눈을 가진 독일 여자아이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라면서 내가 독일인인지 한국인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재외동포청이 입양 동포와 모국과의 유대감 형성과 동포 간 연대를 위해 마련한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가한 야스민 메이시스(49·독일)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라우마 치료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는 그는 한국을 싫어하는 양어머니 때문에 한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얻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약 80분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는 그를 비롯해 제나 라누에(25·미국) 씨, 크리스티나 레비센(42·덴마크) 씨, 톰 에버스(54·스웨덴) 씨 등 4명이 패널로 참가해 그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라누에 씨는 10남매 중 6명이 한인 입양 동포인 가정에서 자라 국제 입양에 대해 관심이 많은 편이다. 레비센 씨는 연구센터의 행정 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아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에 암 진단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자기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에버스 씨는 스웨덴의 한 IT 기업에서 영업 매니저로 일한다. 한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했지만, 두 딸을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딸들의 성원으로 DNA 검사를 했지만, 아직 친가족은 찾지 못했다.

입양 한인 패널 4명 “뿌리 찾기 중요”

이들은 한국에 대한 감정을 공통으로 ‘복잡하다’는 단어로 표현했다. 라누에 씨는 “한국을 찾게 된다는 생각에 흥분되긴 했지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에버스 씨는 “기대감도 있었고 호기심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으로부터 어떤 것을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서 미국과 덴마크 등에서 온 입양 한인 4명이 토크 콘서트 패널로 참석해 입양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로 다른 성장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한국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았다. 메이시스 씨는 “양부모가 ‘너를 버린 한국을 왜 좋아하느냐’고 핀잔을 줬 언젠가부터는 한국에 관한 관심을 끊었다”면서도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며 억압된 기억이 되살아나 뿌리 찾기 여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레비센 씨는 “어릴 때 이성 친구를 짝사랑하면 그의 이름을 수천 번 종이에 써보는 경험이 다들 있지 않나”라며 “제 한국 이름은 ‘송자영’이다. 입양 서류에 적힌 한글 이름을 여러 번 쓰면서 한국을 생각했다”고 털어냈다.

이들은 친생부모를 적극적으로 찾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지만, 뿌리 찾기가 중요하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라누에 씨는 “본능적으로는 뿌리 찾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서도 “내가 갑자기 등장해 친모 등 가족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레비센 씨는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뿌리를 찾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됐다”고 강조했다. 메이시스 씨는 “실질적으로 뿌리 찾기 여정을 시작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며 “양부모와 함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에버스 씨는 “친가족을 실제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서 첫 한국계 시장 탄생

존 박 전(前) 브룩헤이븐시 의원, 결선 투표서 당선



1



2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국계 미국인 존 박(49·한국명 박현중) 전 브룩헤이븐시 시의원이 당선됐다. 박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3천564표)를 득표해 41.4%(2천520표)를 얻은 로렌 키퍼 후보에 승리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면서 한국계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키퍼 후보를 따돌리고 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지만,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박 당선인은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했다. 그는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IBM에서 기술 컨설팅 업무를 했다. 이후 미국 방산 기업 노스롭그루먼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계약 업무를 담당했고, 국가적 질병을 감시하는 기술 컨설턴트로도 일했다.

그는 2014년 보궐 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9년간 애틀랜타의 에모리대에서 세 번 시의원을 지냈다. 그는 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해 8월 시의원직을 사임했고, 1월 중 시장에 공식 취임한다.

2017년 6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주도

박 당선인은 2017년 6월에는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 소녀상은 원래 애틀랜타 중심지인 전국민권센터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집요한 방해로 건립이 좌절됐다. 결국, 박 의원이 소녀상을 건립할 대체 장소로 브룩헤이븐시 공원을 제시하고, 존 언스트 당시 시장과 시의회가 동의해 건립이 성사됐다.

박 당선인은 유창한 한국어로 “너무 기뻐서 말을 못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어로 “이민 1세대로서 조지아주 최초의 아시아계, 한국계 시장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네 고등학교에서 농구를 즐기던 ‘이상한 아시아계 소년’이 나중에 시장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9년 전 처음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을 때 수많은 서류를 보고 뭘 해야 할지 몰랐다”며 “하지만 모두가 함께 좋은 일을 하자는 정신으로 일했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승리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브룩헤이븐 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박 당선인의 출마 직후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한편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김백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장은 “존 박 후보의 시장 당선은 시작으로 앞으로 한인들이 미국 정부 공직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

- 1. 존 박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당선인
- 2. 지난해 12월 5일 미국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존 박 당선인(왼쪽에서 4번째)이 거리에서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 뉴욕경찰 178년 사상 최초로 한인 총경 탄생

허정운 경정, NYPD 임용 25년 만에 총경 승진

미국 뉴욕경찰(NYPD)에서 최초로 한인 총경이 탄생했다. NYPD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 광역지구대의 허정운 경정을 총경으로 내정한 데 이어 나흘 뒤인 12월 22일 진급식에서 그를 총경에 정식 임명했다.

한인이 총경이 된 것은 1845년 설립된 NYPD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NYPD는 3만6천명의 경찰관과 1만9천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이다.

허 총경은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은 그는 2022년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승진한 뒤 1년여 만에 다시 총경에 오르면서 NYPD에서 '최초' 기록을 양산했다.

NYPD에서 경감까지는 시험을 통해 진급할 수 있지만, 경정 이상은 지명을 받아야 승진할 수 있다. 실력은 물론이고 조직 내에서 신망이 있어야 NYPD의 고위 간부가 될 수 있다.

허 총경은 내정자 신분이던 12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높은 유리 천장을 깬 기분”이라며 “한인 경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 출생으로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미국에 온 그는 자신이 NYPD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것은 과학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했다. 출신지나 성별 등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이후에 미국에 온 자신과 같은 이민자도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부하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귀부인’으로 불려

허 총경은 “경찰 조직에 군대와 비슷한 분위기가 있으므로 초임



자나 부하 직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간부들이 적지 않지만, 나는 조금 다른 느낌을 준 것 같다”라며 웃었다.

그는 “초임자가 거리 순찰 근무를 하면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일일이 설명해주고, 일방적 명령 대신 대화와 설명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허 내정자에 대해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정한 귀부인’(True Lady)이라는 애칭도 사용된다고 한다.

허 총경은 향후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한인 경찰관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보다도 똑똑하고, 젊은 후배들이 위로 올라가서 미래에는 한인 NYPD 커미셔너도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6만 명 규모인 NYPD의 수장인

커미셔너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뉴욕 경찰청장이다.

그는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가 NYPD 커미셔너를 만날 때마다 ‘더 많은 한인 경찰 간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같은 관심과 노력이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익환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도 “뉴욕 총영사관은 뉴욕시와 NYPD에 한인 총경의 탄생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면서 “한인 최초 총경 탄생을 계기로 뉴욕 동포사회의 안전도 증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참\]](#)

1. 한인 최초로 미국 뉴욕경찰(NYPD) 총경에 오른 허정운 총경(미주 한국일보 제공)
2. NYPD 역사상 첫 한인 총경으로 승진한 허정운 총경(가운데 오른쪽)이 지난해 12월 22일 퀸즈 칼리지포인트에 있는 NYPD 경찰아카데미에서 열린 진급식에서 에드워드 카반 뉴욕경찰청장으로부터 총경 배지를 전달받고 있다.(미주 중앙일보 제공)

일제 해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난항

우크라이나 전쟁과 일본·중국 비협조 탓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 국내 봉환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를 넘겼다. 일본에 있는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유해들과 중국 하이난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들도 상대국의 비협조 등으로 봉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8차례 사할린 한인 유해 봉환 신청을 받은 끝에 총 17위의 유해를 선정해 봉환을 추진했다. 애초 지난해 9월 중 봉환을 완료해 충남 천안 국립망향의동산에 안치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봉환 협조가 어렵다는 뜻을 전해와 연기됐다.

사할린은 일제 강점기에 수만 명의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 탄광·토목공사장·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현장이다. 학계에서는 2차대전 종전 당시 4만명 이상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아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해방 후에도 일본 정부의 방치와 미수교국이었던 옛 소련과의 관계 탓에 1990년 한·러 수교 전까지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 상당수는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이국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사할린 한인 묘지 발굴·유해 봉환에 합의한 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총 71위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봉환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난해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봉환을 재추진했으나 전쟁으로 봉환 길이 다시 막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 다시 러시아 정부와 협의회 봉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연초에 계획을 세워 러시아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 “외부 환경 어려워도 봉환 더 적극 추진해야”

1945년 우키시마호 사건으로 희생돼 일본 도쿄도 유엔지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275위의 봉환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우키시마호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직후 아오모리에서 출발했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마이즈루 인근 해역에서 침



지난해 3월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몰했다. 이 배에는 귀국길에 있던 조선인 징용 피해자 등 3천700명가량이 타고 있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일본인 승무원 25명을 포함해 549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8년부터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해의 봉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해를 봉환하면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을 빌미가 될 수 있고, 일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도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해 15년 동안 진전이 없다.

중국 하이난섬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도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 사실상 추진이 멈춘 상태다. 하이난섬은 일본이 1945년 패망한 후에도 조선인을 학살한 곳으로, 1천200구의 유골이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하이난섬 유해들을 조사한 현황 자료 및 하이난섬에 대한 공동 조사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외부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가 공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봉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친이 사할린에 강제동원됐던 신윤순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은 “2011년 사할린에 가보니 비석이 없는 묘도 많고, 봉분들만 동그랗게 남아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이미 많이 낮아졌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묘 자체가 찾기 힘들어질 텐데 목소리를 내는 유족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죽으면 누가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창**

한국계 활약한 '성난 사람들', 골든글로브상 휩쓸었다

TV 미니시리즈 작품상 ·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 3관왕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미국의 유명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의 TV 미니시리즈 부문 주요 상을 싹쓸이했다.

1월 7일(현지시간) 저녁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성난 사람들'은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문에서 작품상(Best Television Limited Series, Anthology Series, or Motion Picture Made for Television)을 받았다. 이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한국계 스티븐 연은 같은 부문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한국계 배우의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대역을 맡은 앨리 왕은 같은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로써 '성난 사람들'은 총 3관왕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연출과 제작, 극본을 맡았고, 스티븐 연을 비롯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성난 사람들'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로 화가 나 복수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10부작 드라마로, 지난해 4월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의 몰입을 끌어내 호평받은 이 작품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다.

스티븐 연은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는데,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향후 에미상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는 이날 수상 소감에서 "정말 신기하다. 평소 내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대개 고독과 고립에 관한 것인데, 이곳에서 이런 순간을 맞으니 다른 모든 사람이 떠오른다. 마치(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같은 느낌"이라며 가족과 제작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수상 불발

한편,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 전생)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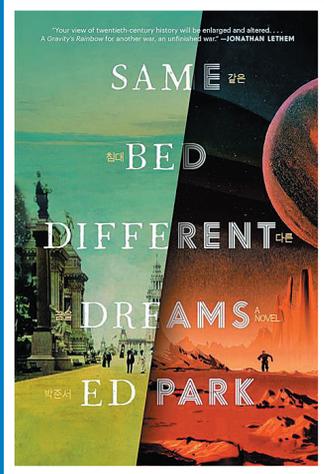
각본상, 비영어권 영화상, 영화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 총 5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송 감독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어린 시절 헤어진 뒤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 두 남녀를 그린 영화로, 한국계 미국인 배우 그레타 리와 한국 배우 유태오가 주연했다.

영화는 '오스카 풍향계'로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오는 3월 열리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에 들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6개 부문 예비후보에 올라 있으며 미국 크리틱스초이스에서는 3개 부문에 올라 있다. [\[장\]](#)



2

1.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가운데)이 1월 7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로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문 작품상을 받은 뒤 같은 부문 남·여우 주연상을 탄 스티븐 연(왼쪽), 앨리 왕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로이터 제공)
2.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의 홍보 포스터(넷플릭스 제공)



뉴욕타임스 '올해 주목받은 책 100권'에 한인 작가 소설 2편 포함 한국 현대사·K-팝 소재로 한 에드 박·에스더 이 작품

한국의 현대사와 K-팝을 소재로 삼은 한인 작가의 소설 2편이 뉴욕타임스(NYT)의 '올해 주목받은 책 100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YT는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2023년 나온 신간 중 탁월한 작품 100권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에드 박(박준서·53)의 '같은 침대, 다른 꿈들(Same Bed Different Dreams)' 과 에스더 이(34)의 'Y/N' 을 포함했다.

박 작가의 '같은 침대, 다른 꿈들'은 생계를 위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순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당시 UFO(미확인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믿는 참전용사 출신 흑인 SF 작가와 남북통일을 위한 비밀공작을 벌이는 임시정부 등 다양한 이야기가 얽힌 작품이다. NYT는 이 작품에 대해 "한국 역사와 미국의 광기에 대한 신랄하고 코믹하면서도 서정적인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출생인 박 작가는 빌리지 보이스 편집자 등을 거쳐 지난 2008년 소설가로 데뷔했다. 동상이몽은 그의 두 번째 소설이다.

에스더 이의 'Y/N'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아이돌의 은퇴 소식에 서울행 편도 비행기 표를 산 미국 여성의 이야기다. K-팝에 대한 주인공의 집착을 통해 개인의 성취 가능성을 차단한 현대 사회를 고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에 대해 NYT는 "괴상하고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 작가는 로스앤젤레스 출생으로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소설은 그의 데뷔작이다.

미국 한인 셰프 '물회면', 뉴욕타임스 '올해 최고의 요리' 선정 민승현·진림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 '반상'의 창작 요리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이 내놓은 메뉴가 뉴욕타임스(NYT)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 중 하나로 선정됐다.

NYT는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전역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 최고의 요리 23선을 발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한식 레스토랑 '반상'의 '물회면'을 포함했다. 물회면은 면 위에 한국식 물회와 함께 무와 오이 등을 올린 창작 요리다.

NYT는 "각 재료의 특성이 분명해 보이지만,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며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북돋워 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에 문을 연 레스토랑 반상은 이 지역의 유명 레스토랑을 거친 한인 셰프 민승현과 진림이 운영하고 있다.

반상은 일본과 프랑스 요리 재료와 기법을 사용한 독창적인 한식으로 미국 서부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민 셰프는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에 “한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국 요리의 맛을 알려주는 입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다솜한국학교, '재미동포의 삶과 꿈' 출간 인물 위주로 한 재미 한인 이주 역사 교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재미 한인 이주 역사를 인물 위주로 소개하는 교재인 '재미동포의 삶과 꿈'을 최근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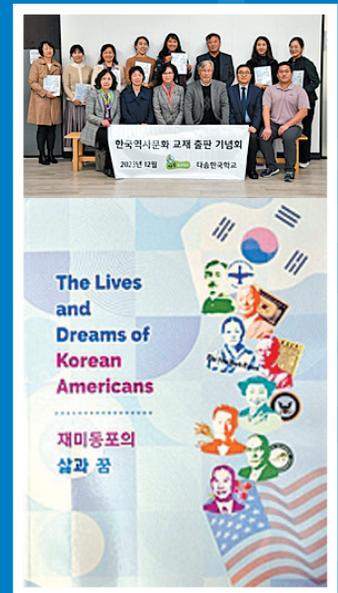
책은 재미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서재필·이승만을 비롯해 아시안 여성 최초 미 해군 장교였던 안창호의 딸 안수산,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던 유관순 열사, '쌀의 대왕'이라 불리는 부호로 월로우스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한 김종림, 천도복숭아 품종을 처음 개발한 김형순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솜한국학교는 지난 1년간 '한국학교에서 배우는 한인사 인종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민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을 간추려서 교재로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9일(현지시간) 열린 출판기념회·토크콘서트에는 강완희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장, 김현주 프리몬트 통합교육국 교육위원장, 박석현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목사, 전남진 다솜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최미영 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미국 정규 고교 필수 과목이 된 인종학과 관련해 한국학교에서 교재를 만들고 수업을 8년째 진행해 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인 차세대들이 뿌리에 대해 깊게 알고 자부심과 정체성을 고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솜한국학교는 전 세계 한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내용을 재외동포청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원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에 올리기로 했다. 



‘원자력계 큰 별’ 재독 동포 과학자 김재일 박사 별세



향년 87세로 별세한 김재일 박사

재독 동포 과학자이자 유럽 원자력계의 거목인 김재일 박사가 지난해 12월 3일 독일 뮌헨에서 별세했다. 향년 87세.

일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고인은 1961년 한국원자력 연구원에 입사해 재직 중 유한양행 창업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도움으로 벨기에 겐트대학에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1977년 독일 뮌헨공대(TUM)에서 교수 자격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뮌헨공대 교수, 스웨덴 왕립공과대학(KTH) 석좌교수, 독일 카를스루에 공대(KIT) 핵폐기물처분연구소장을 지냈다.

1987년에는 국제학술대회 ‘MIGRATION’을 만들었고, 독일 연방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에너지 분야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유럽연합(EU)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코디네이터 및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1973년에는 유럽 한인과학자협회와 재독한인과학자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1975년), 국무총리상(1986년),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독일원자력학회 ‘Gunther-Wirth-Prize’ (1990년)를 수상했다.

그는 한·유럽 간 핵화학 분야 학문적 가교로 수많은 한인 과학자를 후원하고 양성했다. 1995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고, 2001년 KBS 동포상(과학 분야)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의사인 두 딸이 있다. **장**

18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검사된 한인 청년

피터 박, 툼레이 카운티 지검 검사에 임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 한 뒤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다. 캘리포니아주 툼레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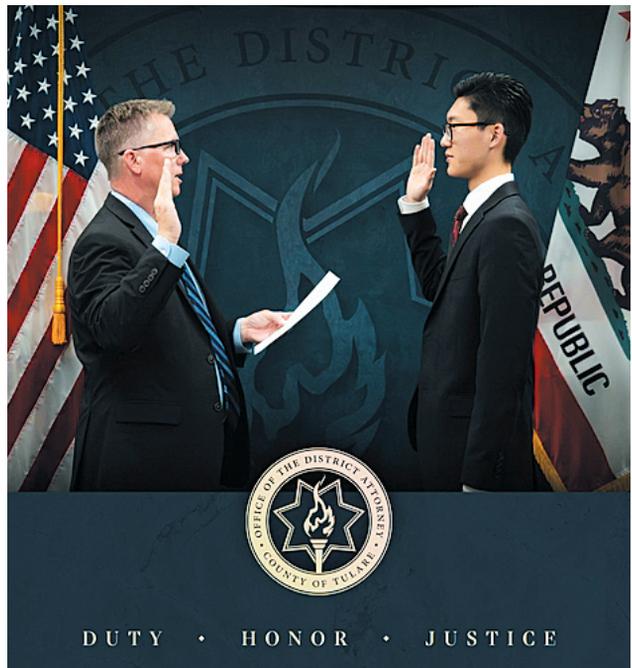
피터 박은 지난해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퍼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지난해 졸업했다.

이후 8월부터 툼레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11월 말에는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12월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피터 박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장**



미국 캘리포니아주 툼레이 카운티 지검의 검사로 임용돼 선서하는 피터 박(18·오른쪽) (툼레이 카운티 지검 페이스북 캡처)

한국서는 J팝 · 일본서는 K팝 메창 터졌다

일본 대중음악 국내 완전 개방 20년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 장내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인기 일본 밴드 요아소비(YOASOBI)의 히트곡 '아이돌'을 떼창으로 따라 불렀다. 요아소비는 "해외 첫 솔로 콘서트를 한국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일본 후쿠오카 페이페이 돐에서 열린 K팝 간판 걸그룹 트와이스의 콘서트. 2024년 7월 7만명대 규모를 자랑하는 닛산 스타디움에서의 공연 계획이 '깜짝' 공개되자 장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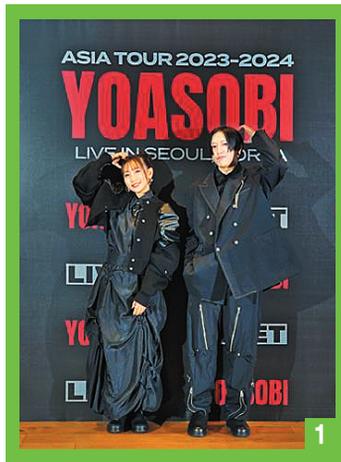
새해 1월 1일을 기해 일본 대중음악의 한국 내 빚장이 완전히 풀린 지 20년을 맞았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가요계에선 '체급'이 우위였던 일본 대중문화 시장에 한국 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K팝은 이를 보란 듯이 불식시키고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최근 들어서는 일본 차세대 인기 가수가 국내에서 공연하고 인기곡을 배출하는 등 J팝이 인기를 끌면서 K팝과 J팝이 동반 성장을 해가는 모습이다.

2004년 일본어 가요 CD 국내 발매 허용

한국은 2004년 1월 1일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하나로 일본어로 된 가요 CD 국내 발매를 허용했다. 앞서 1999년 2차 개방으로 2천석 이하 규모의 실내 일본 대중음악 공연을 허용한 뒤 2000년 모든 일본 대중음악 공연을 개방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음지에서 소비되던 엑스재팬, 우타다 히카루, 드림스 컴 트루 등 유명 일본 뮤지션의 CD가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당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음악시장인 일본 음악계의 국내 영향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다만, 2004년은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송되고 가수 보아도 큰 성공을 거두



는 등 일본에서 '한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한 때라 1998~1999년 일본 대중문화 1~2차 개방 때만큼 우려가 크지는 않았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대중음악 개방의 여파는 크지 않았다. 개방 이후 나카시마 미카가 국내에서 수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올리고 휴대전화 컬러링 음악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삽입된 리메이크곡 '눈의 꽃'(원곡 雪の華)이 인기를 끈 데 따른 영향이 컸다. 2006년에는 일본의 인기 그룹 아라시(嵐)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연 내한공연이 전석 매진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 아이돌 전반에 관한 관

심은 아니었다.

일본서 K팝 인기 폭발... 국내서는 차세대 'J팝 스타' 주목

반대로 K팝은 지난 20년간 일본에서 '활활' 날았다. 2002년 보아가 일본 정규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로 일본 오리콘 앨범 차트 첫 1위를 차지했을 때만 해도 관련 소식이 지상파 메인뉴스로 다뤄질 정도였다. 하지만 2023년 들어서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NCT 등 슴한 후배 가수들이 오리콘 정상에 올라 이는 '예사일'이 됐다.

일본 내 K팝 한류는 현지화에 성공한 보아·동방신기가 불을 지핀 이래 소녀시대·카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뒤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세븐틴 등으로 이어져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2021~2022년 모든 현지 가수를 제치고 해외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에서 2년 연속 연간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최고의 가수들만 출연할 수 있다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 NHK '홍백가합전'에는 그룹 세븐틴·스트레이 키즈, 걸그룹 르세라핌과 트와이스의 유닛(소그룹) 미사모 등이 무대를 꾸민다.

K팝 한류만큼 열기가 뜨겁지는 않지만 일본 가수들도 최근 국



2



3



4

내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90년대 마니아층을 거느린 엑스재팬, 라르크 앙 시엘, 아무로 나미에 등 유명 J팝 가수보다는 후배로, 2000년대 이후 데뷔한 요아소비, 이마세, 레드웜프스 등이 그 주인공이다.

요아소비는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OST '아이돌'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엠카운트다운' 같은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아이브, 르세라핌, 에스파 등 유명 K팝 스타들이 '아이돌 챌린지' 영상을 올린 점도 인기를 거들었다.

K팝, 일본서 '현지화 그룹'으로 새 도약

가요계에서는 한류 태동기에 이뤄진 일본 음악의 국내 개방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며 한국 가요의 체질 강화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이규탁 한국 조지메이슨대 교양학부 교수는 "2004년은 J팝이 동아시아에서 이전만큼의 인기를 잃어 퇴조하던 때였고, 동시에 우리 음악과 드라마가 조명받기 시작하던 시기"라며 "일본 음악을 양성화하니 오히려 우리 음악이 일본 음악을 암암리에 따라 하던 경향도 사라졌고, 음악 개방을 통해 한국 음악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역설적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K팝은 이제 '일본 진출'을 넘어 일본인 위주로 구성된 현지화 그룹을 통해 또 다른 도약을 시도 중이다. JYP의 니쥬와 하이브의 앤팀(&TEAM)이 이미 데뷔해 성과를 냈고, SM도 올해 일본 거점의 'NCT 뉴 팀'(가칭)을 정식 데뷔시킨다.

한 대형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틱톡이나 유튜브 등 글로벌 SNS를 활용한 K팝 특유의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 일본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며 "일본 음악 시장이 세계적 규모인 만큼 주요 기획사들이 현지화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창**

이태수 · 최재서 연합뉴스 문화부 기자

1. 일본의 2인조 그룹 요아소비가 2023년 12월 1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리벳 제공)
2. 방탄소년단(BTS)이 2018년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LOVE YOURSELF ~JAPAN EDITION~' 공연을 펼치고 있다.(빅히트 제공)
3. 일본 인기 아이돌 그룹 아라시(Arashi)가 2008년 11월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내한공연을 펼치고 있다.(J Storm Inc.제공)
4. 가수 보이(가운데)가 2009년 5월 일본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최대 음악 축제 '2009 비디오 뮤직 어워즈 재팬'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 연수 참가자들 “한국 발전상 알리기 적극 동참”

재외동포청 주최 초청연수 토론회서 동참 의지 다져

재외동포청 주최로 서울 서초 서초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23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6박7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공리에 폐막했다. 연수는 1월 8일 개최식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4회의 전체교육, 한국어 교수법·에듀테크 등 5회의 분과 교육·실습, 지역별 및 전체 토론, 역사·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1월 14일 폐막일에는 수료식과 우수연수생 시상식이 열렸다

앞서 1월 10일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거주국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란 주제를 놓고 지역별 소그룹 토론이 진행됐다. 참가 교사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한국 알리기 사업’에 대한 동참 의지를 다졌다.

북미 분과에서는 ▲한인회·한글학교협의회 등 단체 간 협력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서 참가자들을 상대로 기조 강연하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통한 지역 교육 당국과의 소통 창구 마련 ▲학부모-교사 협의회(PTA, Parents-Teacher Association) 등 현지 교육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의 발전상 관련 수업 개설 유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시아·유럽 등 분과에서는 ▲현지 교육 관계자 대상 한국 발전상 세미나 개최 ▲학부모 대상 수업 개설 ▲현지 교과서 등의 오류 발견 시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청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47개국 206명의 참가자 중 16개국 30명의 교사는 한국 발전상 알리기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앞으로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현지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다’ 출간

임영상 교수, 전국 28곳을 발로 뛰며 기록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고려인 마을을 직접 발로 뛰며 기록한 책이 최근 출간됐다. ‘한국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다’(북코리아)는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4개월에 걸쳐 ‘아시아엔’에 기고한 탐방기를 묶은 소책자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역(광주광역시, 경상도, 충청도)의 기존 고려인 마을 25곳은 물론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고려인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천, 전북 김제, 충북 제천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년간 재외동포 사회를 연구해온 임 교수는 특히 ‘의병의 고장’인 제천시가 ‘고려인의 고향’으로 거듭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제천시는 지난 10월 국내 거주 고려인 유치에 첫발을 뒀고, 내년부터 해외 거주 고려인 이주도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출판기념회도 열렸다.

임 교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지방 중소도시들이 제천시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 우수인재 전형(유형1)뿐 아니라, 동포 당사자와 가족들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제공하는 ‘유형2’에도 관심을 갖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유치·초청 사업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고려인 마을을 찾다’ 표지 모습

사할린 한인 이야기 담은 동화책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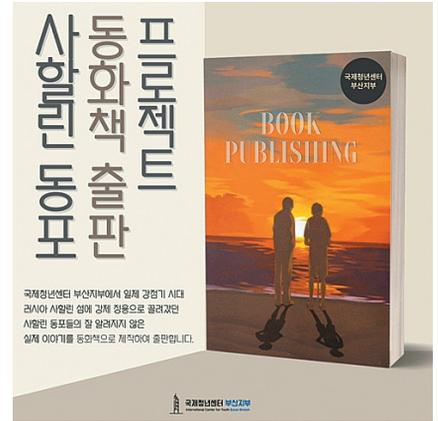
국제청년센터 부산지부가 프로젝트 주관

비영리 봉사단체인 국제청년센터(센터장 김인수)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가 오랜 시간 잊힌 존재로 살았던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제작한다. '나의 시간은 사할린에 멈춰있다'란 제목으로 출간하게 될 동화책은 부산지역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을 돕는 국제청년센터 부산지부가 프로젝트를 주관한다.

사할린에 징용된 한인들은 광업, 어업, 공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해방된 후에는 냉전시대라는 장벽에 막혀 귀향하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부산지부는 영주 귀국해 부산시 기장군에 정착한 사할린 1~2세 동포들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만든다.

국제청년센터 관계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없지만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라며 "이야기와 그림을 곁들여서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리 및 삽화 제작을 위한 대학생 봉사자들을 모집했고, 2024년 3월 말까지 책을 제작해 어린이 교육·복지 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사할린 동포 동화책 출판 프로젝트 안내 홍보물

재외동포청,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실시

평창 등 강원도서 겨울 체험... 21개국 264명 참가

재외동포청은 1월 18~24일 강원도 평창 등지에서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동계)'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21개국에서 26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국 문화 체험을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다.

모국 연수사업은 차세대 동포(14~18세)를 대상으로 모국의 사회·문화·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계 연수는 모국의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동계 연수는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개최식 및 동계 스포츠 체험 ▲도전 골든벨 한국어 게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람 및 응원 활동 등으로 설계됐다.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은 1월 19일 연수 개최사에서 "재외동포



'제3차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에 참가한 세계 21개국 264명의 청소년이 1월 19일 강원도 평창군 모내항명 별라스쿨에서 개최식을 마친 뒤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재외동포 청소년들도 재외동포 사회에서 빛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상해 나가기로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 정조의 사부곡... 화성 용릉과 건릉 역사 돌아보고 자연미도 감상하는 공간



1

왕릉은 역사를 돌아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좋은 공간이다. 이 중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묻혀 있는 곳 중 하나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이다. 조선의 영조와 그의 아들 내외인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손자 정조의 얽히고설킨 이야기는 TV 드라마와 영화, 문학의 단골 소재였다. 이들을 둘러싼 이야기와 시대적 배경에는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영조실록에는 1762년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는 세자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자는 자신을 폐하기로 한 부친 영조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고, 세손(훗날 정조)도 그 뒤에 엎드렸다. 영조는 세손을 안아 밖으로 내보냈다. 세자는 결국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숨진다. 영조는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아들을 애도하는 뜻에서 그에게 '사도(思悼)세자'라는 시호를 내렸다. 후에 왕위에 오른 정조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그의 왕릉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용릉

용릉과 건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입구가 같다. 용릉 입구에 도착해 안내 지도를 살펴보니 숲길을 사이에 두고 용릉과 건릉이 표시돼 있고, 입구를 지나니 갈림길이 나왔다. 사도세자와 부인 혜경궁 홍씨가 합장된 용릉이 있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십여 분 정도 지나자 홍살문이 보이고 그 뒤에 정자각이 눈에 들어왔다.

현장에 있던 해설사와 함께 능침(陵寢, 왕이나 왕비의 무덤)까지 올라갔다. 자연과 단정하게 어울린 봉분과 주변의 석마(石馬), 문석인(文石人)과 무석인(武石人), 석양(石羊), 석호(石虎)가 보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봉분을 견고하게 둘러싼 병풍석이었다. 연꽃과 모란 모양이 보였고 그 아래 돌에는 기와 모양의 무늬가 있었다. 화려하고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도세자가 숨진 뒤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에 그의 묘가 만들어졌고, '수은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아들 정조는 즉위 후 이를

높여 '영우원'이라 했다가 1789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 이름을 '현릉원'으로 바꾸었다. 정조는 11년간 12차례 걸쳐 능행(陵行)을 했다. 혜경궁 홍씨는 세상을 떠난 뒤 현릉원에 합장됐고 1899년 이곳이 능으로 높여지면서 현재의 용릉이 됐다.

간소해 보이는 건릉

이번에는 사도세자의 아버지 정조가 묻혀있는 건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역시 해설사와 동행해 능침에 올라가 보니 봉분에는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있다. 시대적 배경이 달라서 그런지 용릉에 비하면 간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건릉은 생전에 아버지 곁에 묻히고자 했던 정조의 뜻에 따라 처음에는 현릉원 근처 동쪽 언덕에 조성됐다. 이후 효의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합장하려고 했지만, 건릉의 원래 위치가 풍수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현재 자리로 건릉이 옮겨지면서 합장릉이 됐다.

당시 정조가 처음 묻혔던 곳은 왕릉 내 숲길 이정표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찾을 수 있다. 그 위치가 전해지지 않다가 2011~2012년 왕릉 규모의 봉분 구역과 담장 시설, 유물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지금은 '정조대왕 초장지'(正祖大王 初葬地)라고 적힌 안내판이 있다. 능침 뒤에는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단정하게 서 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

용릉과 건릉에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다.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객이 이어졌다. 산책로를 따라 이동할 때면 끈끈하게 뻗어나 조금 구부러진 소나무들의 선이 인상적이었다. 벤치도 적절히 배치돼 방문객들이 오손도손 앉아 있었다. 잘 정돈된 공원의 모습이 인상됐다.

용릉에서 건릉으로 넘어가기 위해 나무계단을 내려가니 은빛의 역사가 펼쳐진 곳도 있었다. 시간대에 따라 보이는 풍경도 달랐다. 해가 비칠 때면 소나무 숲이 상쾌하게 보이다가도 해 질 녘이 되면 쓸쓸하게 느껴졌다. 용릉과 건릉을 포함해 한국에 있는 조선왕릉 40기(基)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정조가 세운 용주사

용릉과 건릉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용주사가 있다. 정조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1790년에 새로 지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용주사는 원래 신라 때 갈양사로 창건됐다가 고려 때 잦은 전란으로 소실됐는데, 후에 정조가 빈터에 사찰을 새로 지었다. 능침 사찰로서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와 효의왕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홍살문을 지나면 삼문(三門)이 보인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궁궐 양식이라고 한다.

삼문을 지나면 천보루가 보이는데, 목조기둥 아래에 석조 기둥과 같은 높은 초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역시 궁궐 건축과 유사하다. 범종각에서는 문살 틈으로 국보인 용주사 동종을 살펴볼 수 있다. 안내판에는 신라 양식을 보이는 고려 시대 초기의 범종이라 적혀 있다. 



2



3



4

1.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릉(오른쪽)과 건릉(왼쪽) 전경
2. 사도세자와 부인 혜경궁 홍씨가 합장된 용릉
3. 정조가 묻혀있는 건릉을 공중에서 촬영한 모습
4. 용릉과 건릉에서 2km 거리에 있는 용주사의 대웅보전

세계 47개국 한글학교 교사 206명 초청 연수 진행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에 앞장서는 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이번 연수에는 47개국에서 206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다양한 한국어 교수법과 교육 현장 수요가 높은 에듀테크(기술을 통한 교육 혁신) 활용법 등에 대해서 배우고 우수 한글학교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사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섰다.

첫날 개회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열악한 경에서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판 독립투사이자 정부 재외동포 정책 수행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글학교 운영비와 교사 봉사료의 현실화 등 한글학교를 위한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은 재외동포청의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연수가 동포청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축사에서 “재외동포가 세계 각지에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여온 것은 한글과 우리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헌신해온 한글학교 선생님 덕분”이라며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1월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중장기 교육의 관점에서 재외동포 교육 지원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도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한글학교 교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더 많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주서 개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지난해 12월 7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제4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지로 전북 전주시를 선정했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운영위는 이날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전주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놓고 개최 계획과 타당성·현장 점검 등을 검토 후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2002년부터 매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여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오른쪽)이 1월 1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회의실에서 김우재 무궁화유통그룹 회장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으로 위촉한 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 한인 경제인,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2024년 대회를 이끌 대회장으로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그룹의 김우재 회장을 뽑았다.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1978년 인도네시아에서 창업해 무궁화유통을 식품·무역·관광·건설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키웠다.

2024년 대회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논의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에서 열리는 ‘제4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대폭 개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의 대폭 개선에 나섰다. 우선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수료를 낮췄다.

재외공관-외교부-도로교통공단(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거쳐 진행되던 업무의 소요 기간이 기존 4~8주에서 2~4주로 줄었다. 도로교통공단이 재외동포청에 직원을 파견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도 14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됐다.

법원행정처와도 협의해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수수료를 1.5달러에서 1달러로 낮췄다. 재외동포청은 개선한 서비스를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작년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민원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국적, 병무, 아포스티유(증명서 발급), 해외 이주, 가족관계 증명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세무, 건강보험, 국민연금, 운전면허,



지난해 6월 5일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관계자(왼쪽)가 서류발급을 시연하고 있다.

보험, 고용 관련 민원 서비스 기능도 추가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추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

셀린 송 감독

데이비드 이노호사·크리스틴 배슨·패멀라 코플러 제작

2023년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드라마 영화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36)의 감독 데뷔작이며, 각본 역시 그가 맡았다. 2023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됐고, 한국에서는 CJ ENM이 올해 상반기 개봉될 예정이다.

유년 시절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나영'과 '해성'. 두 사람은 그러나 '나영'의 가족이 이민하게 되면서 헤어진다. 그 후 20여 년 만에 뉴욕에서 '노라'와 '해성'으로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운명적 이들을 함께 보낸다.

송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역은 한국계 미국 배우 그레타 리가, 상대역은 한국 배우 유태오가 각각 맡아 열연했다. 대부분의 대사는 한국어로 이뤄졌다.



지난해 1월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돼 호평받은 뒤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으며,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섬어워즈 최우수작품상과 전미비평가협회(NSFC) 작품상을 받았다. 송 감독은 올해 1월 10일 미국감독조합(DGA)이 수여하는 신인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DGA는 제76회 시상식의 '첫 장편영화'(First-Time Theatrical Feature Film) 부문 감독상 후보로 송 감독을 지명했다.





재외한인학회, 국내 귀환 동포 인권 관련 학술 세미나 개최

재외한인학회(회장 임영언)는 1월 2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내 귀환 동포의 법적 지위와 인권'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우선 임영상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귀환 고려인 동포와 주민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경을 중국 연변일보 논설위원이 '재중동포의 중국 내 인권과 한국에서의 인권 현황 고찰'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배광웅 일본 오사카교육대 교수가 '재일코리아인 동포의 법적 지위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한다.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부산서 사랑의 온정 행사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이사장 김명찬)는 연말을 맞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동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쌀과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미국, 베트남, 호주 등에서 참가한 협의회 임원과 국내 회원 등이 함께했다. 매년 고국에서 전방 부대 장병 위로 행사를 열어온 협의회는 부산에 이어 목포에서도 온정 나눔 행사를 열었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 '한인회 운영 도우미' 발간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회장 심상만)는 전 세계 한인회 운영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인회 운영 도우미'를 최근 발간했다. 한인회 정관 작성법과 사례, 의전 실무, 행사기획·홍보, 공개 채팅방 운영, 화상회의 방법 등 한인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이 책자는 전 세계 한인회로 배포하며,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해 세한총연 홈페이지(www.wakanews.org)에 공개했다. 세한총연은 작년 초 한인회가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 '한인회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북'도 발간했다. 2021년에 설립된 세한총연은 전 세계 한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협력 활동을 확대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욕한인회, 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미국 뉴욕한인회는 1월 13일(현지시간) 맨해튼 지그펠드볼룸에서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비롯해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주요 정치인과 지역사회 리더 300여명이 참석해 한인 이민 역사를 되돌아보고 의미를 되새겼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이민 문화로 앞으로 한인사회는 이전과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다음 세대가 부담 없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활동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외 한국학교의 중요성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 모두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 세계 111개국에 있는 1천462개 주말 한국학교(한글학교)가 한인 차세대들에게 마을이 돼주고 있다.

주말 한국학교의 목표는 한국어 습득만이 아니다. 한인 차세대들의 전인적 성장과 한인 정체성 확립,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한국인의 민족적 긍지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필자가 교장으로 있는 다솜한국학교가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21세기 4차산업 시대를 살아갈 한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한국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봤다. 다솜한국학교는 그간 여러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고 학습자 구성과 교육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학습자 구성이 다양해짐에 따라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교수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글만 교육하다가 한국 역사와 문화를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연구해 가르쳤고, 이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까지 하고 있다.

1903년 미주 한인의 공식 이민이 시작된 이후 120년이 지난 2023년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인 동포 261만여명이 거주한다.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한글은 물론 K-팝부터 한국식 치킨, 김치 등 먹거리까지 K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다. 한인들은 이제 자부심을 갖고 미국의 다양성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공식 지정된 미주 한인의 날, 한글 날, 한복의 날, 김치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직지의 날 등의 기념



최미영
미국 다솜한국학교 교장

일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13년 정규학교 교육과정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 미주 한인사가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재미 한인 인구 전체의 약 1/3이 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에 관한 내용은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두 가지였다. 그러던 중 2016년에 한인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일반사회 교육과정과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역사와 문화 내용을 다수 신게 됐다. 2020년부터는 인종학 교육과정에 미주 한인사 추가되고 정규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국 역사와 문화, 미주 한인사 교육은 정규학교뿐 아니라 주말 한국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함을 강하게 느꼈다. 학생들이 주말 한국학교에서 이를 미리 배우면 정규학교에서는 타민족 친구들에게 배운 것을 자신 있게 나누며 리더십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반세기 만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이야기, 소수민족으로 고난을 극복하며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여한 미주 한인들의 이야기 등을 주말 한국학교가 앞으로 지속해 가르쳐서 학생들이 잘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차세대 한인 학생들이 자기 뿌리에 관해 잘 알아야 역사의식과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며 공공외교에서도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도 기여하며 마침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과 동반 성장하는 긴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국어 습득을 넘어서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주말 한국학교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아시아지역 동포간담회 개최

간담회 개요

- 기간: 2024년 1월 22일 ~ 1월 26일(4박 5일)
- 장소: 필리핀(마닐라), 태국(방콕)
- 목적: 현지 동포사회 현안 청취를 통해 아시아지역 정책수립 토대 마련 및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개선사항 도출
- 주요내용
 - 재외한글학교 교사 대상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및 제고방안' 강연
 - 재외동포청의 설립목적, 주요 정책 및 지원사업 등 소개
 - 동포간담회 계기로 현지 동포사회의 현안 파악 및 건의사항 청취
 - 현지 동포단체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의 개선사항 도출

전체 일정

일시	시간구분	일정
1월 23일(화)	오전	• 한국전 참전비 헌화
		• 마닐라 코리아타운 시찰
	오후	• 필리핀 동포 오찬간담회
		• 마닐라한국국제학교(필리핀한글학교) 방문 • 재외한글학교 교사 간담회 및 강연
1월 24일(수)	마닐라	• 한-필 우호기념 조형물 방문
1월 25일(목)	오전	• 재외한글학교 교사 대상 강연
		• 재외한글학교 교사 오찬간담회
	오후	• 재태국한인회 방문
		• 태국 한국전 참전비 헌화
	저녁	• 태국 동포 만찬간담회

재외동포청장 동정

- 1월 8일: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개회식 참석
- 1월 16일: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대회장 예방
- 1월 22~26일: 아시아지역(필리핀, 태국) 동포간담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